

우리나라 서비스 무역구조 분석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nalysis of Service Trade Structure in Korea

김 영 춘*

(Young-chun Kim)

— 목 차 —

- I. 서론
- II. 서비스무역의 현황
- III. 우리나라 서비스 무역구조 분석
- IV.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I. 서론

서비스무역은 상품무역에 상대적으로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 하였으나 최근 WTO체제의 출범과 서비스무역의 자유화에 따른 서비스부문의 생산요소의 이동과 투자확대가 급속도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정보통신의 기술 발달과 글로벌화의 진전으로 제조업 뿐만 아니라 서비스산업의 국제간의 교역 확대로 경제가 선진화되면서 국민소득의 증대, 생활의 질에 대한 욕구 증대 등을 배경으로 서비스산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세계 각국은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서비스산업을 육성하는데 관심을 갖고 서비스무역의 규제 완화, 투자 확대 등으로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경제의 서비스화는 산업구조상 3차 산업의 비중이 증대되는 것과 함께 제조업 자체 내에서 제품의 고급화, 전문화,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정보,

* 제주대학교 경상대학 무역학과 교수

기술, 지식 등 전문서비스의 투입을 증대시켜 재화산업과 서비스산업의 상호보완적 발전을 촉진시키는 제조업내부의 서비스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경제의 서비스화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21세기에 접어들어 경제의 서비스화 현상은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주요한 경제적 트렌드의 하나이다. 미국을 중심으로 선진국 경제에서는 경제 내 서비스의 중요성이 증대되는 서비스 경제로의 이행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경제의 소프트화, 서비스의 글로벌화, 제조업의 서비스화 등에 의해 세계적으로 경제의 서비스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경제발전단계가 고도화된 국가일수록 서비스의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경제의 서비스화의 심화는 고용 창출과 부가가치의 증대로 서비스 소비의 증가와 정보통신(IT) 등 기술 혁신에 의한 서비스산업의 확장적 발전에 기인하는 바도 있지만 경제의 글로벌화, 공급자들이 직면하는 경쟁 환경의 변화, 제조업 생산성 향상에 의한 제품서비스화 등의 영향도 크다. 따라서 서비스산업은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그 비중이 높아지고 제조업의 성장과도 더욱 밀접한 관계를 맺는 성향이 강하다.

우리나라의 서비스무역은 그 동안 제조업 위주의 무역정책에 밀려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취급해 온 것이 사실이다. 최근 들어 정부는 서비스산업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제경쟁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우리나라도 경제규모가 확대되면서 서비스산업이 국민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교육과 의료 등 지식기반형 서비스 비중이 높아지고 부가가치가 높다는 이유로 주목을 받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나라 서비스무역은 생산, 고용, 소비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경상수지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에도 서비스산업의 특성과 제조업 위주의 경제정책으로 인해 우리나라에서는 높은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서비스무역은 각 산업별로 이질성이 매우 강한 관계로 정형화된 산업분류가 없는 실정이다. 또한 서비스산업에 대한 조세 및 금융지원 정책이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것이 현실이다.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해 시장규모가 작은 국내시장을 벗어나 글로벌 시장을 대상으로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며 만성적인 서비스수지 적자구조를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서비스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조망해 볼 필요가 있다. WTO체제의 출범으로 서비스 시장이 점진적으로 개방되면서 국제경쟁이 일반화되고 있으며, 향후 FTA가 급속히 확산 진전될 경우 서비스무역의 국제경쟁력 확보는 국민경제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국제무역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서비스무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우리나라 서비스무역의 국제적 위상을

보다 세밀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의 목적은 세계 서비스무역의 현황과 우리나라의 서비스무역의 현황을 비교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서비스무역의 국제적 위상과 경쟁력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중국, 일본, 미국 그리고 EU과의 서비스 무역의 업종별 무역구조를 비교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향후 서비스무역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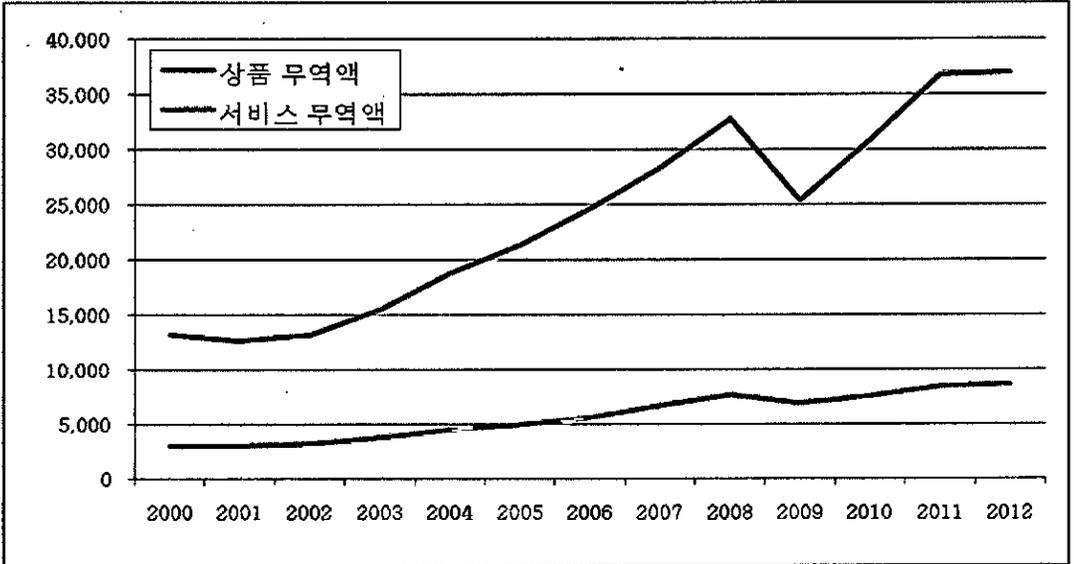
II. 서비스무역의 현황

2.1. 세계 서비스무역의 현황

세계 무역의 규모는 최근 WTO체제의 자유무역주의와 지역주의의 FTA의 추세로 급격하게 증대되고 있다. 또한 신흥공업국의 대외무역정책의 적극적인 도입과 다국적기업의 활동이 심화되면서 제조업 및 서비스무역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세계의 상품과 서비스의 수출입 변동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 수 있다. 세계 전체 교역에서 여전히 상품의 교역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세계 서비스의 수출입은 전체의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그림 2>참조). 이는 서비스무역 시장의 개방 정도가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2000년에서 2012년간 세계 총 상품의 수출과 수입의 평균 증가율은 각각 9.92%, 9.66%이며, 서비스의 세계 총 수출과 수입의 평균 증가율은 각각 9.64%, 9.29%로써 상품과 서비스의 증가율이 유사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서비스 무역과 상품의 교역이 상호보완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것으로 시사된다. 예를 들어 건설부문에서 보면 단순한 장비 및 기계라는 유형의 재화를 국경을 통과하여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장비와 기계를 설치하고 운전하기 위하여 이에 따른 인력의 노하우와 훈련이 수반하게 된다. 따라서 재화의 교역에 의해 서비스의 무역이 파생된 것으로 본다. 그리고 재화의 국경 이전에는 반드시 세관을 경유하게 되지만 서비스의 경우는 세관에 통계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 서비스무역의 비중은 훨씬 더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1> 세계 상품 및 서비스 무역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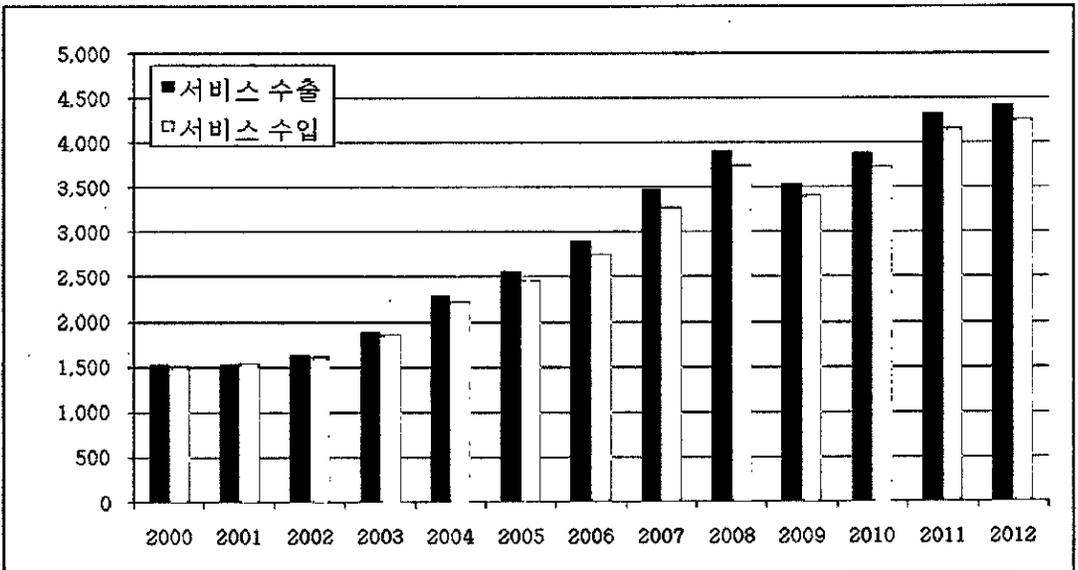
(단위 : 10억 달러)



자료 : WTO, International Trade Statistics 2013

<그림 2> 세계 서비스 무역 추이

(단위 : 10억 달러)



자료 : WTO, International Trade Statistics 2013

<표 1>은 2012년 세계 전체의 서비스무역에서 차지하는 국가별 서비스무역 비중을 나타낸 것이다. 미국의 경우 서비스수출이 6,403억 달러로 전세계 서비스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4.47%, 수입은 10.33%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서비스무역 수지가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세계에서 서비스무역 수지가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국가로는 영국, 스페인, 네덜란드, 프랑스, 그리고 한국이 2012년에 흑자로 전환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반면에 서비스무역 수지가 적자인 국가로는 독일, 중국, 일본으로 대부분 선진국가들 가운데 서비스무역 수지가 흑자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중국의 경우 2012년 기준으로 중국의 총수출액에서 서비스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8.6%인 반면에 총수입액에서 서비스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14.2%로, 한국의 서비스수출과 서비스수입의 비중이 각각 16.8%, 17.2%에 비하여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선진국의 전체 수출에서 서비스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22%을 상회하는 것에 비하여 우리나라는 낮은 서비스무역 구조를 띠고 있다.

<표 1> 국가별 서비스업 수출 수입 규모

(단위 : 10억 달러)

순위	국가	수출	비중	순위	국가	수입	비중
	세계	4,425	100.00		세계	4,274	100.00
1	미국	640	14.47	1	미국	441	10.33
2	영국	283	6.41	2	독일	294	6.89
3	독일	261	5.91	3	중국	281	6.58
4	프랑스	211	4.78	4	영국	179	4.21
5	중국	191	4.33	5	일본	176	4.13
6	일본	145	3.29	6	프랑스	172	4.04
7	인도	141	3.19	7	인도	128	3.00
8	스페인	136	3.09	8	네덜란드	119	2.81
9	네덜란드	133	3.02	9	싱가폴	117	2.76
13	한국	110	2.50	12	한국	108	2.53

자료 : WTO, International Trade Statistics 2013

2.2. 우리나라 서비스무역 현황

우리나라 서비스무역은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적자가 유지되면서 우리나라의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서비스시장이 개방되기 전에는 서비스 무역수지의 적자규모가 미미하여 서비스 무역적자 문제의 심각성이 크게 인식되지 않았다. 그러 최근 국제경제환경의 변화로 2000년 이후 서비스 무역수지 적자의 폭이 점차 증가하면서 2007년까지 경상수지의 흑자 폭이 감소하면서 서비스 무역수지의 심각성을 인식하게 이르렀다.

우리나라 무역규모는 2012년에 12,865억 달러로 2000년 3,979억 달러에 비하여 3.2배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에 최초로 1조 달러의 무역규모를 달성하였으며, 2009년에 세계금융위기의 영향으로 무역규모가 급감한 후 2010년 이후 다시 무역규모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 및 <그림 3> 참조).

<표 2> 우리나라 무역 규모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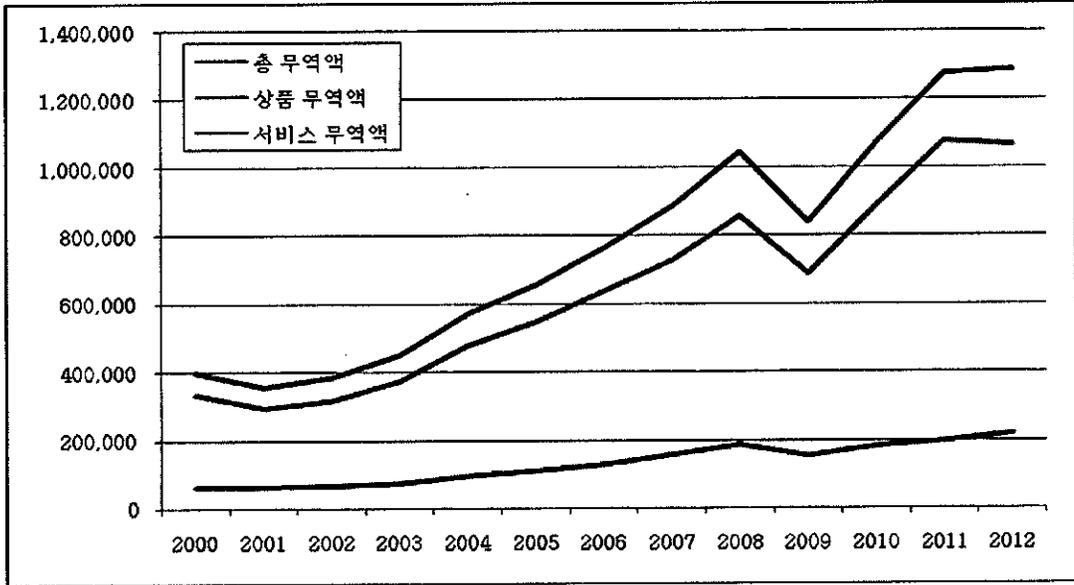
(단위 : 100만 달러)

	총 무역액	상품 무역액	비중	서비스 무역액	비중
2000	397,865	332,748	83.6	65,117	16.4
2001	354,906	291,537	82.1	63,369	17.9
2002	382,153	314,597	82.3	67,556	17.7
2003	448,385	372,644	83.1	75,741	16.9
2004	573,347	478,308	83.4	95,039	16.6
2005	655,098	545,657	83.3	109,441	16.7
2006	761,864	634,848	83.3	127,016	16.7
2007	886,292	728,335	82.2	157,957	17.8
2008	1,044,286	857,282	82.1	187,004	17.9
2009	840,419	686,618	81.7	153,801	18.3
2010	1,074,787	891,596	83.0	183,191	17.0
2011	1,275,991	1,079,627	84.6	196,364	15.4
2012	1,286,486	1,067,454	83.0	219,032	17.0

자료 : WTO, International Trade Statistics 2013

<그림 3> 우리나라 무역 규모 변화 추이

(단위 : 100만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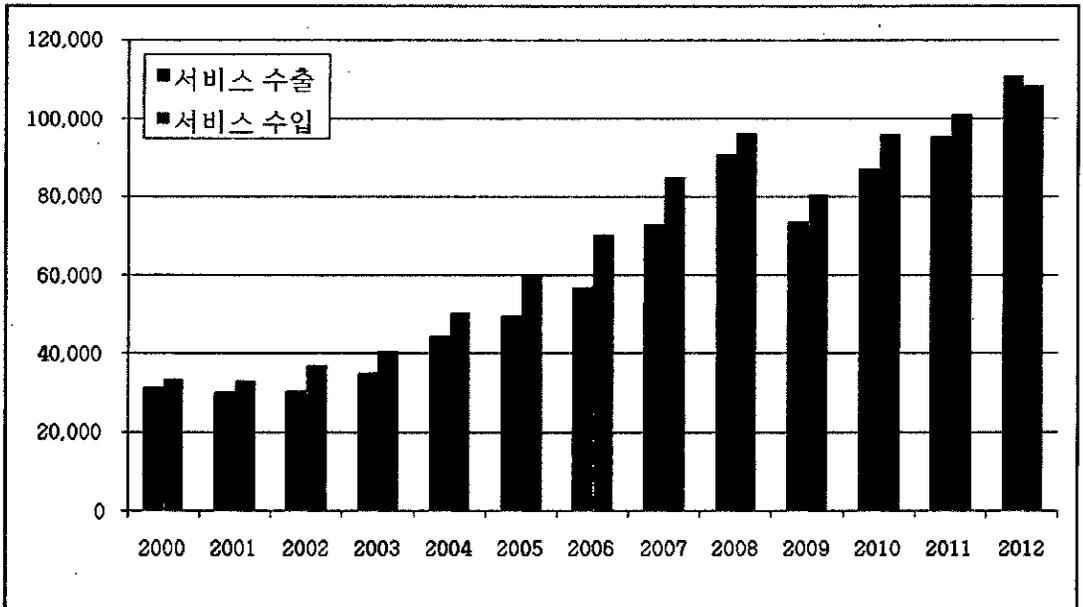
자료 : WTO, International Trade Statistics 2013

이는 서비스무역에 비하여 상품무역의 증가가 10,675억 달러로 현저하게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다. 서비스무역은 2000년 651억 달러에서 2012년에 2,190억 달러로 점진적으로 증가해 왔으나 이는 무역규모에 비하여 서비스무역 비중이 17%로 선진국의 평균 21%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서비스무역규모는 2000년 이후 현재까지 점차 우상향의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그림 3> 참조). 우리나라 전체 서비스 수출이 2000년에서 2012년 기간 동안 315억 달러에서 1,109억 달러로 352% 증가한 반면 서비스 수입은 2000년에서 2012년 기간동안 336억 달러에서 1082억 달러로 322% 증가하였다. 우리나라 서비스무역은 2000년 이후 적자확대기에는 수출보다 수입규모가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온 것으로 알 수 있다. <그림 4>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우리나라 서비스수출과 수입은 200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해 오고 있는 것으로 기록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서비스무역수지는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적자 폭이 점차 증가해오다가 2009년 미국의 금융위기로 인하여 서비스 수출이 큰 폭으로 축소되어 -18.9%의 수출비중을 나타내었으며 수입비중은 -16.8%로 서비스 무역수지 적자 폭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에 우리나라 서비스 무역수지가 1.45억 달러의 흑자 반전은 우리나라의 서비스

무역이 과거에 비해 개선되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변화라 하겠다(〈그림 5〉 참조). 이로 인하여 상품수지 흑자에다 서비스수지흑자까지 가세함에 따라 경상수지 흑자 폭이 확대되었으며, 이는 우리나라의 대외건전성 제고에 일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 우리나라 서비스 무역 추이

(단위 : 100만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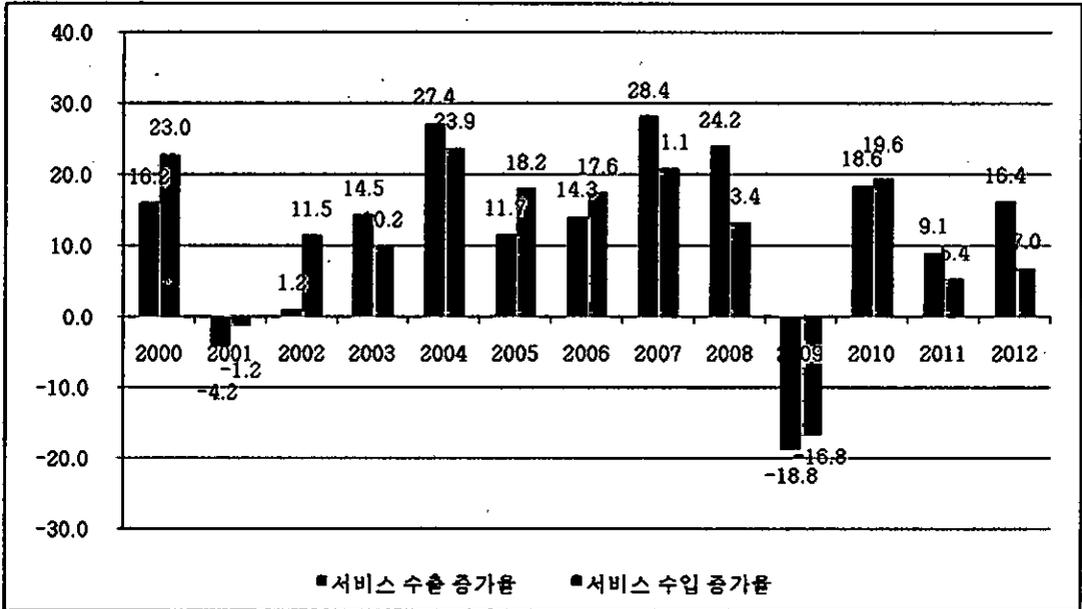
자료 : WTO, International Trade Statistics 2013

우리나라 서비스의 수출증가율을 살펴보면 2000년에 16.2%, 2004년 27.4%, 2007년 28.4% 그리고 2008년 24.2%로 높은 수출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반면에 서비스의 수입 증가율은 2000년 23%, 2004년 23.9% 2010년 19.6%로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2011년 이후 부터는 서비스무역의 증가율이 점차 낮아지고는 있으나 서비스무역 규모 면에서는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5> 우리나라 서비스무역 증가율 추이

(단위 : %)



자료 : WTO, International Trade Statistics 2013

우리나라 서비스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2000년에서 2012년간의 업종별로 살펴보면, 운수의 경우 매년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의 기준으로 볼 때 운수가 서비스무역 가운데 무역비중이 32.38%로 타 업종에 비하여 압도적으로 높으나 2010년 이후 점차 비중이 감소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 외의 순으로 사업서비스가 27.89%, 여행이 15.69%, 건설이 12.37%로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건설서비스와 사업서비스 업종은 2010년 이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통신서비스 1.13%, 정부서비스 1.08%, 그리고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는 0.43%로 전년도에 비하여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 참조).

〈표 3〉 우리나라 서비스무역 업종별 비중 현황(2000~2012년)

(단위 : %)

	2000	2003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통신	1.55	1.37	1.30	0.93	1.00	1.27	1.25	1.21	1.13
컴퓨터 및 정보	0.16	0.22	0.67	0.56	0.47	0.40	0.40	0.50	0.43
건설	1.72	3.21	6.55	7.30	8.72	11.29	7.80	9.83	12.37
금융	1.38	1.06	2.43	2.98	2.39	1.94	1.95	2.18	1.92
정부	1.86	2.19	1.84	1.67	1.15	1.18	1.08	1.19	1.08
보험	0.33	0.56	0.89	0.90	0.65	0.70	0.76	0.61	0.60
사업서비스	26.97	23.42	22.25	22.96	21.51	25.49	25.80	27.10	27.89
개인, 문화, 오락	0.46	0.45	0.82	0.87	0.76	0.89	0.91	1.00	1.11
특허권 등 사용료	6.02	6.45	5.28	4.35	4.30	6.76	6.65	5.93	5.40
운수	38.06	40.67	38.56	39.68	43.62	33.92	37.49	33.90	32.38
여행	21.49	20.42	19.41	17.81	15.43	16.17	15.91	16.55	15.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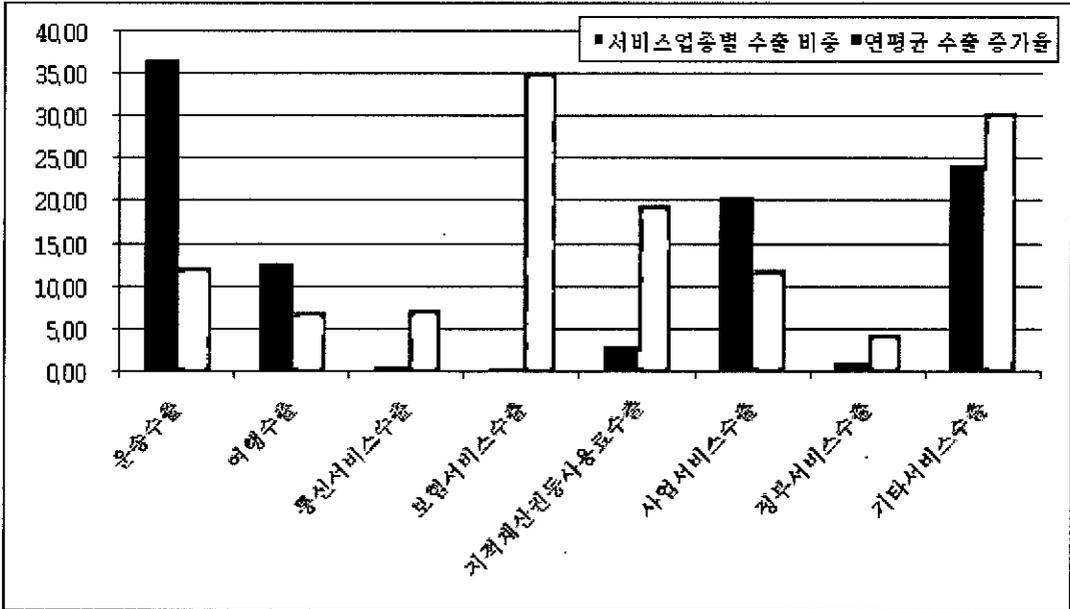
자료 : WTO, International Trade Statistics 2013

우리나라 서비스 업종별 수출 비중을 2012년 기준으로 살펴보면 운송서비스 수출 비중이 36.72%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이 기타서비스 수출이 24.37%, 여행수출이 12.84%, 지적재산권등사용료 수출이 3.10% 순으로 우리나라에서 4개의 서비스무역 업종에서 77%를 차지할 정도로 선도적인 수출 역할을 하고, 또한 서비스 업종으로 전체 수출 증가를 견인하는 것으로 기록되고 있다. 특히 운송수출은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위치 및 수출 주도의 경제성장으로 국내기업의 해외진출과 관련을 가지고 있다. 한편 연평균 증가율을 살펴보면 보험서비스 수출이 35.29%로 가장 높고 다음이 운송 서비스 수출이 12.27%, 지적재산권등사용료 수출이 19.72%, 사업서비스 수출이 11.97%의 순으로 높은 수출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통신서비스, 보험서비스, 그리고 정부서비스 업종의 수출은 부진한 것으로 파악된다(〈그림 6〉 참조).

서비스 업종별 연평균 수출 증가율(2000~2012년)을 보면 보험서비스 업종의 수출 증가율(35.29%), 기타서비스 수출 증가율(30.63%), 지적재산권등사용료 수출 증가율(19.72%)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정부서비스, 여행서비스, 운송서비스의 수출 증가율은 둔화된 것으로 파악된다.

<그림 6> 서비스 업종별 수출 비중(2012)과 연평균 수출 증가율(2000~2012년)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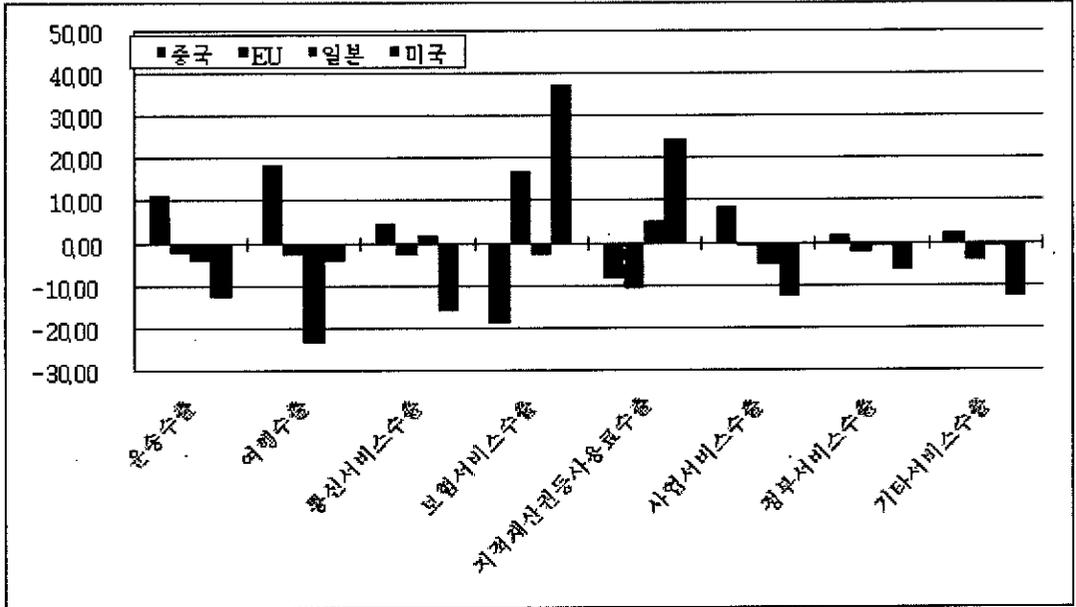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우리나라 서비스무역의 지역별 수출 비중은 2012년 기준으로 중국이 14.32%, 미국 17.15%, 일본 11.99%, EU 9.65% 순이며, 특이한 것은 서비스무역액의 규모는 증가하고 있지만 대상국가 및 지역이 다원화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최근 중동지역(13.97%)과 동남아시아(18.86%)의 서비스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일본과 EU에 대한 서비스 수출액은 증가하고 있지만 역시 지역별 비중 면에서는 점차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서비스 업종별·지역별 수출 비중 변화는 <그림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가로 별로는 대부분의 업종에서 중국의 교역 위상이 크게 확대된 것으로 보이고 있다. 이 중에서 여행서비스 수출 비중이 18.60%, 운송 11.49%, 사업서비스 8.87%의 순으로 대중국의 수출이 확대되고 있다. 보험서비스와 지적재산권등사용료 업종에서는 대중국 수출 비중이 감소하고, 반면에 대미국의 서비스 수출 비중은 보험서비스(37.64%)와 지적재산권등사용료(24.71%)를 제외하고는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이는 대중국의 수출증대로 통해 상쇄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그림 7> 참조).

<그림 7> 서비스 업종별·지역별 수출 비중 변화(2000~2012년)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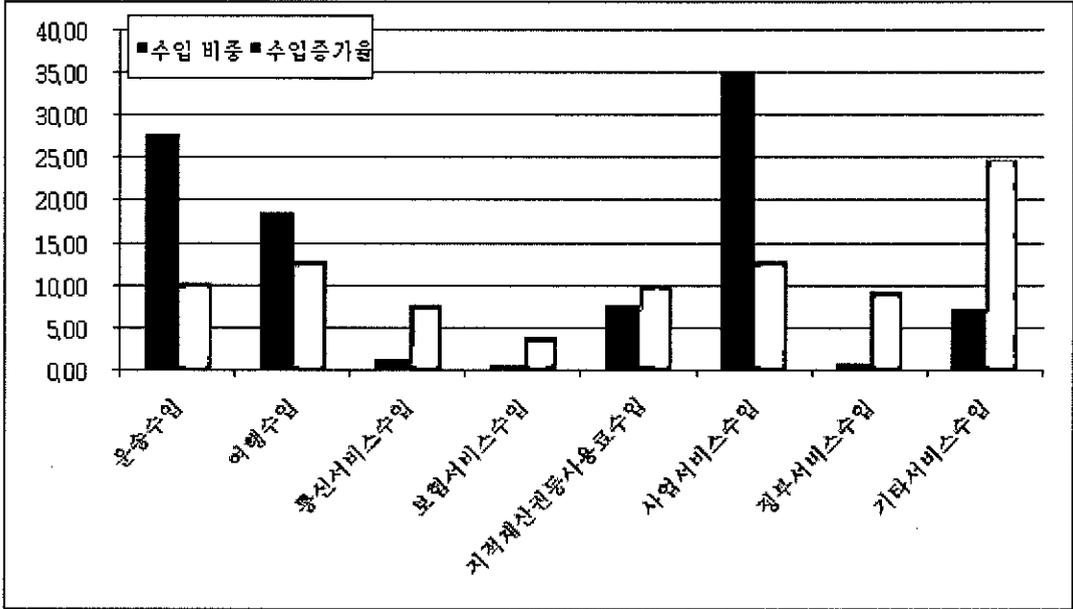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우리나라 서비스 업종별 수입 비중을 2012년 기준으로 살펴보면 사업서비스 수입 비중이 35.25%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이 운수서비스 수입이 27.87%, 여행수입이 18.58%, 지적재산권등사용료 수입이 7.75% 순으로 우리나라에서 4개의 서비스무역 업종에서 89.45%를 차지할 정도로 서비스 수입이 편중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2000~2012년간의 연평균 수입증가율을 살펴보면 기타서비스 수입증가율이 24.79%로 가장 높으며, 여행서비스 13.10%, 사업서비스 12.94%의 순으로 나타났다(<그림 8> 참조).

우리나라 서비스무역의 지역별 수입 비중은 2012년 기준으로, 미국(28%), EU(17.09%), 중국(11.15%), 일본(8.00%)순이며, 특이한 것은 서비스무역액의 규모는 증가하고 있지만 대상국가 및 지역이 미국, EU, 중국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최근에 동남아시아(17.79%)의 서비스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보이고 있다. 그리고 대일본과의 서비스 수입액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이는 최근 일본 엔화의 평가절하의 영향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입증된다.

<그림 8> 서비스 업종별 수입 비중(2012)과 연평균 수입 증가율(2000~2012년)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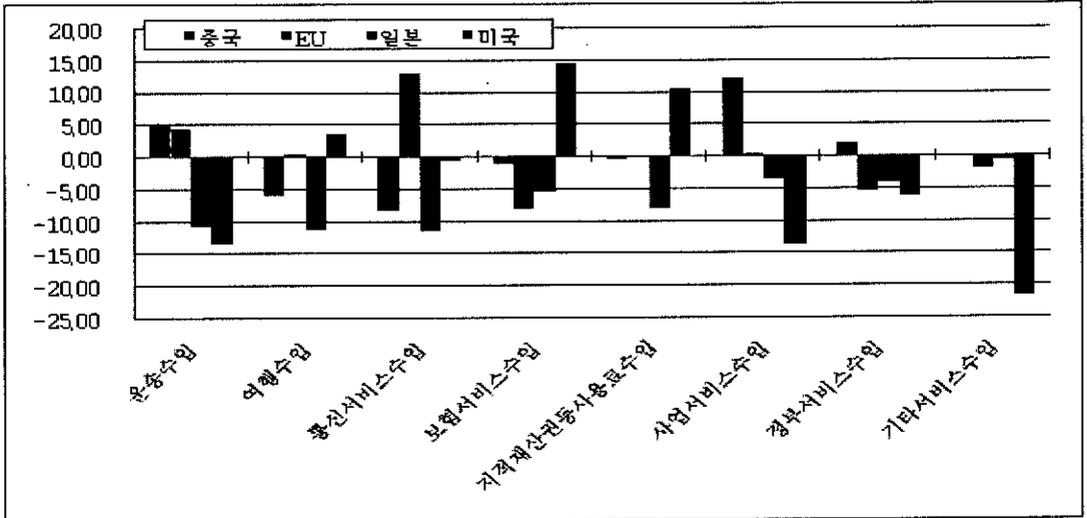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우리나라의 서비스 업종별·지역별 수입 비중 변화는 <그림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근 중국과 서비스 수입 비중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중에서 사업서비스 12.29%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이 운송서비스로써 5.39%, 정부서비스 2.04%이며, 반면에 통신서비스 -8.15%, 여행서비스 -5.54%로 수입 비중이 감소하고 있는 현상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국과의 수입 비중을 보면 기타서비스(-21.48%)가 가장 크게 줄어들고 있으며, 사업서비스, 운송서비스 순으로 수입 비중 감소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일본과의 수입 비중에서는 통신서비스, 여행서비스 그리고 운송서비스 수입 비중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2012년 이후 대미 서비스무역과 대일 서비스무역의 적자 폭을 축소함으로써 전체의 서비스수지를 개선시킬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9> 서비스 업종별·지역별 수입 비중 변화

(단위 : %)



자료 :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은 제조업 산업에 비하여 열악한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최근 우리나라의 GDP에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고용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반면에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과 부가가치비율이 낮아 국제경쟁력 측면에서 열위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서비스무역액은 지역적 편차가 심한 편이며 특히 교역대상 국가와의 지리적 거리와 경제규모와의 상관관계에 놓여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Ⅲ. 우리나라 서비스 무역구조 분석

3.1. 세계시장점유율

세계시장점유율(International Market Share: IMS)은 일국의 특정산업(상품)의 수출액 또는 수입액이 해당 산업(상품)의 세계시장 전체 수출액 또는 수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로써 국가간의 국제경쟁력을 비교하기 위해 사용되는 지표이다. 국제시장 전체의 특정산업(상품) 총 수출액(수입액)에서 일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클수록 그 산업(상품)의 국제경쟁력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다.

$$IMS_{ij} = \frac{X_{ij}}{X_{iw}} \times 100 (\%)$$

IMS_{ij}: 국가의 i 상품 무역에서의 국제시장 점유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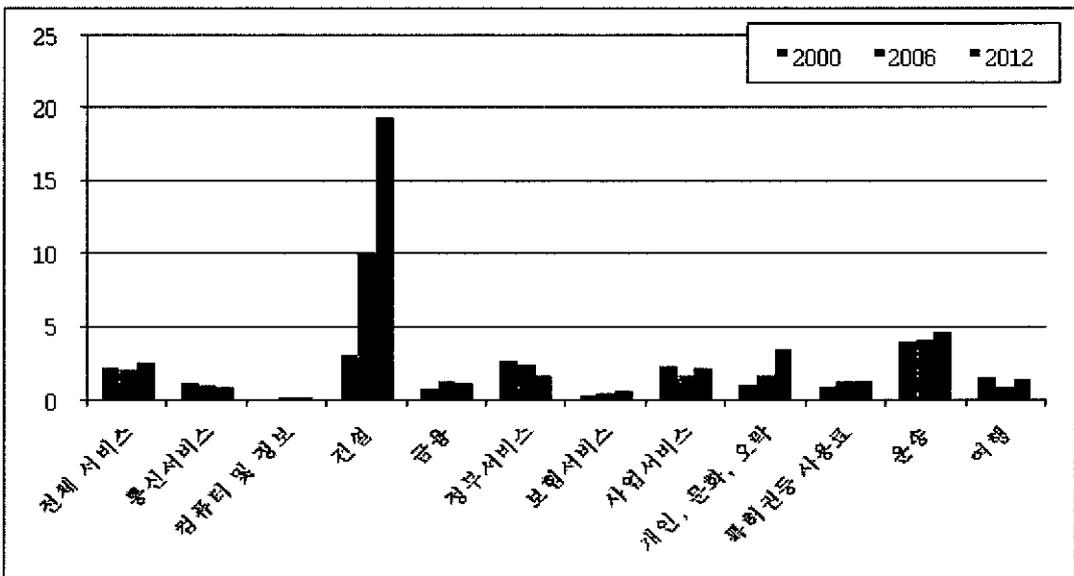
X_{ij}: 일정기간 중 j 국가의 i 상품에 대한 총 수출액

X_{iw}: 일정기간 중 전 세계의 i 상품에 대한 총 수출액

우리나라의 세계시장점유율을 이용하여 서비스무역 업종별 특성을 분석해 보면 <그림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의 세계시장점유율은 2012년을 기준으로 볼 때 2.50%로 2000년 이후 점진적으로 상승해 온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 서비스무역의 업종별로 보았을 때 건설서비스가 19.38%로 가장 괄목하게 성장해 온 것으로 파악된다. 2000년 이후 다른 업종에 비해 가장 큰 격차 세계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국제수지의 편제 변경으로 해외건설공사가 직접투자에서 건설서비스로 변경한 부문과 건조한 해외 건설시장 및 환율 상승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이해된다. 운송서비스 업종이 4.56%, 개인·문화·오락서비스 업종은 3.44%으로 우리나라에서 세계시장점유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0> 우리나라 서비스 업종별 국제시장점유율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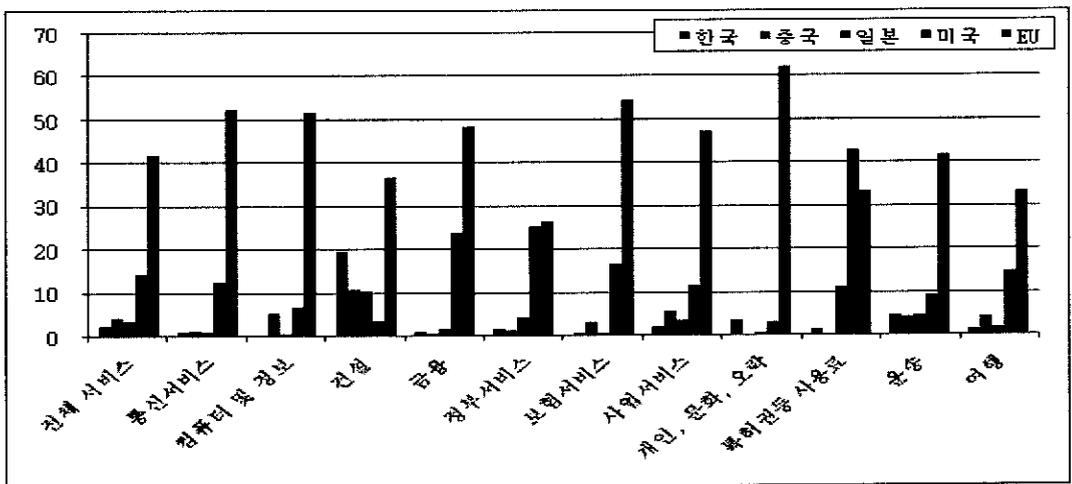
자료 : WTO, International Trade Statistics 2013

국가별 서비스 무역의 세계시장점유율을 보면 EU를 제외한 미국이 2012년에 14.45%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을 갖고 있으며, 중국 4.25%, 일본 3.29% 순으로, 서비스 무역의 세계시장점유율에 중국이 일본보다 높은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그림 11> 참조). EU경우 2000년도에 서비스무역 규모가 6,570억 달러에서 2012년에 1조8,518억 달러로 2.8배가 증가하여 미국을 압도적으로 선도하고 있으며, 미국은 2000년에 2,891억 달러에서 2012년에 6,403억 달러로 증가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EU는 미국에 비하여 모든 서비스업종에서 시장점유율을 앞서고 있다. 국가별·업종별로 살펴보면 EU를 제외한 경우, 미국의 지적재산특허권등사용료가 42.92%로 가장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정부서비스 25.17%, 금융서비스 23.86%, 보험서비스 16.58% 순으로 파생금융부문에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건설서비스 업종에서는 한국이 경쟁력이 가장 높고 그 다음 중국, 일본, 미국 순으로 나타났다. 운송서비스 업종에서는 한국, 중국, 일본간의 시장점유율이 비슷한 관계로 국가간의 경쟁력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음을 직감할 수 있다.

그리고 미국의 전체 서비스업종에서는 2000년 이후 점차 세계시장에서의 점유율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이는 중국, 한국, EU, 일본 등의 시장점유율이 증가함으로써 상쇄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또한 세계서비스시장이 미국의 독주시장에서 다원화된 시장으로 환경이 변모해 가는 모습으로 파악된다.

<그림 11> 국가별·업종별 국제시장점유율 비교(2012년)

(단위 : %)



자료 : WTO, International Trade Statistics 2013

3.2. 현시비교우위지수

현시비교우위지수(RCA;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는 세계 전체 수출시장에서 특정상품(서비스 포함)의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과 특정국의 수출에서 동 상품수출이 차지하는 비중 사이의 비율로 특정 상품의 비교우위를 판단하는 데 널리 쓰이는 지표이다. 특정상품의 현시비교우위지수가 1보다는 크다는 것은 특정국의 특정상품이 여타상품에 비하여 비교우위에 놓여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반면에 1보다 작다는 것은 여타상품에 비해 비교열위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현시비교우위지수는 당초 상대 생산비용이나 상대가격 자료의 수집에 대한 제약하에 대안적인 비교우위 산출방식으로 제시되었다. 결과적으로는 비교우위의 결과를 나타냄으로써 특정 비교우위이론에 귀속되지 않고 기술적 요인, 부족요소비율의 차이 등에 기인한 상대가격 변화에 따른 비교우위 가능성과 규모의 경제에 기인한 시장점유율 및 교역의 변화 가능성이 모두 포괄된 지표로서 사용된다.

$$RCA_{ij} = \frac{(X_{ij}/X_{iw})-1}{(X_j/X_w)+1}$$

RCA_{ij}: 일정기간 중 i 상품 무역에서 j 국가의 현시비교우위지수

X_w: 일정기간 중 전 세계의 전체상품에 대한 총 수출액

X_{iw}: 일정기간 중 전 세계의 i 상품에 대한 총 수출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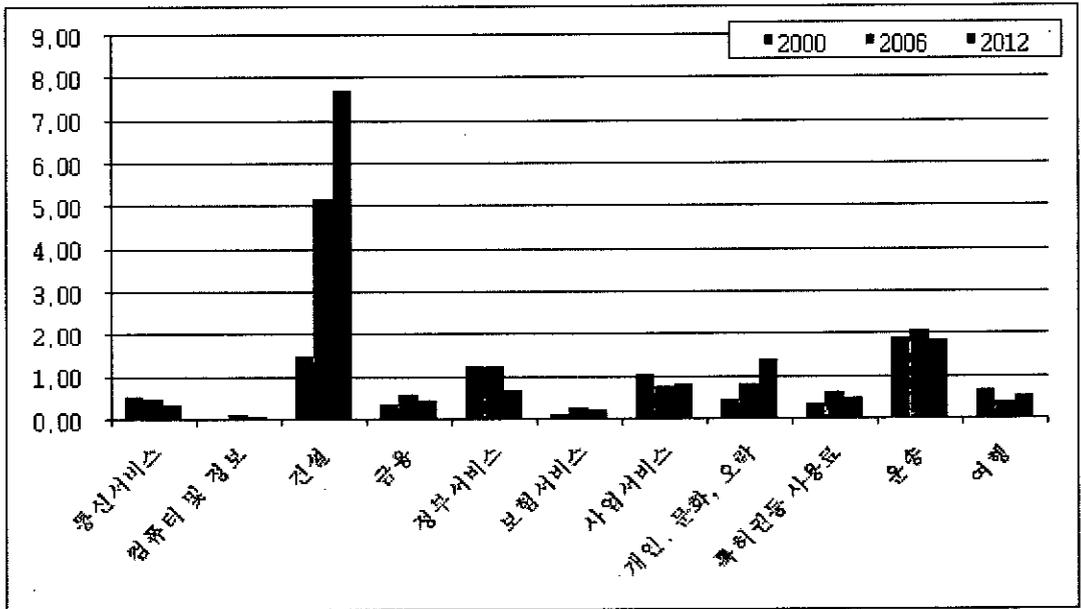
X_j: 일정기간 중 j 국가의 전체상품에 대한 총 수출액

X_{ij}: 일정기간 중 j 국가의 i 상품에 대한 총 수출액

2000년에서 2012년간의 우리나라의 현시비교우위지수를 살펴 본 결과, 건설서비스 업종이 비교우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저하게 높은 비교우위도가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운송서비스 업종, 정부서비스 업종, 개인·문화·오락서비스 업종에서 수출 호조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 중에서 운송서비스 업종은 2000년 이후 2012년까지 견조하게 현시비교우위지수가 1을 상회하여 비교우위를 확보해 오고 있다. 그리고 금융서비스, 보험서비스, 특허권사용료서비스 등에서도 비교우위가 개선되는 모습이고 반면에 여행서비스, 통신서비스,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 업종에서는 비교열위가 지속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 12> 참조).

<그림 12> 우리나라 현지비교우위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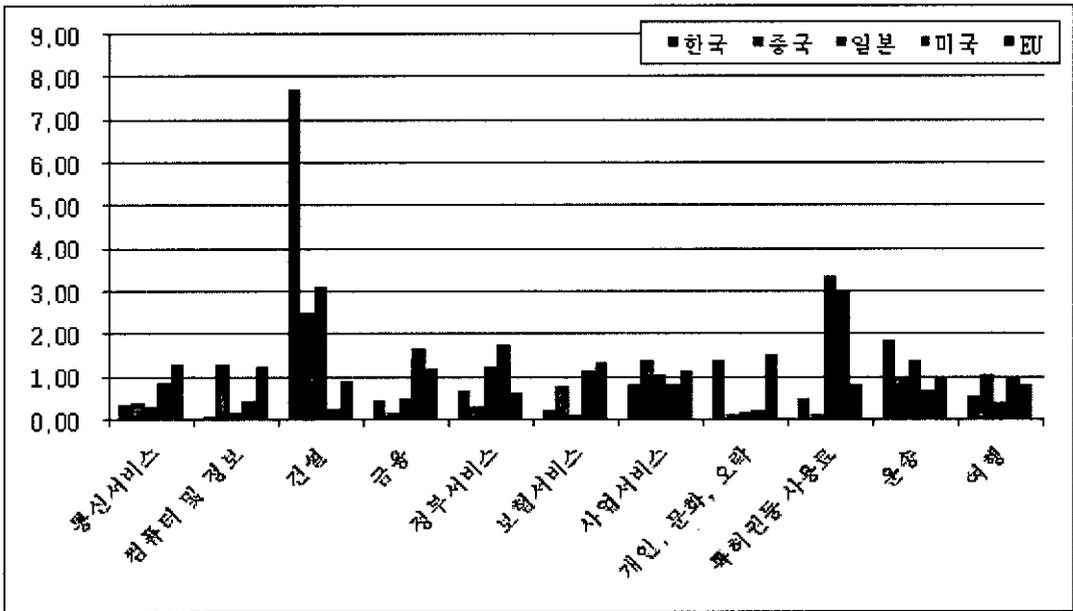


자료 : WTO, International Trade Statistics 2013

우리나라와 국가별 현지비교우위지수를 비교해 보면 <그림 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건설서비스 업종이 가장 현저하게 비교우위도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건설서비스의 경우 플랜트(산업설비) 수출이 중동지역과 아시아지역에서 독점적인 지위에서 편중되어 수출액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최근 중국이 건설서비스 업종에 수출 비중이 증가하면서 비교우위지수가 2.51로 높은 수준으로 우리나라를 추격해 오고 있는 모습이다. 2012년 기준으로 미국은 금융서비스 1.65, 보험서비스 1.14, 특허권등사용료서비스 2.67로 비교우위가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특허권등사용료서비스 업종에서는 일본이 3.34로 미국보다 비교우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중국은 특허권등사용료서비스 업종에서 비교우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운송서비스 업종에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1.82로 비교우위도가 가장 높으며, 반면에 미국이 0.64로 운송업종에서는 비교우위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현지비교우위지수가 우리나라 보다 높은 서비스 업종으로는 여행서비스, 사업서비스, 보험서비스,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 등에서 우리나라보다 비교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중국의 시장규모가 우리나라에 비하여 크고 인구 수와도 민감하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업종으로 인식된다. EU의 경우 현시비교우위지수가 모든 업종에 걸쳐 고르게 1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림 13> 국가별·업종별 현시비교우위지수 비교(2012년)



자료 : WTO, International Trade Statistics 2013

3.3. 산업내 무역지수

산업내 무역지수는 특정 산업(업종)내에서 국내비중과 국외비중을 수치상으로 표시한 것을 산업내 무역지수라 한다. 산업내 무역 정도를 측정하는 도구로 사용되는 그루벨-로이드(Grubel - Lolody)지수는 특정 산업(업종)의 수출과 수입이 얼마나 균형을 이루는가를 측정한다. 산업내 무역지수의 값이 1에 가까울수록 산업내 무역이 활발함을 의미한다.

브룰하트(Brulhart:1994)가 지적하듯이 그루벨-로이드(GL) 지수는 어느 특정시점에서의 정태적 무역구조를 수치화하고 있어 무역구조의 동태적 변화를 측정함에 있어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한계 산업내 무역지수(Marginal Intra-Industry Trade Index, MIIT)를

이용하여 업종별 산업간·산업내 무역구조 변화 추이를 동태적인 무역패턴 변화의 차원에서 측정하고자 한다.

$$MIIT_{ij} = 1 - \frac{|\Delta_t X_{ij} - \Delta_t M_{ij}|}{|\Delta_t X_{ij}| + |\Delta_t M_{ij}|}$$

MIIT_{ij}: j 국가의 i 상품 무역에서의 한계산업내 무역지수

$\Delta_t X_{ij}$: 일정기간 중 j 국가의 i 상품에 대한 총 수출액

$\Delta_t M_{ij}$: 일정기간 중 j 국가의 i 상품에 대한 총 수입액

한계 산업내 무역지수(MIIT)는 한계 산업간 무역지수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무역증가량에서 산업내 무역 증가량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만약 한계 산업내 무역지수가 1이라면(0 이라면), 무역증가가 전적으로 산업내(산업간) 무역증가에 기한다고 볼 수 있다.

2000년부터 2012년까지 우리나라 서비스무역의 업종별 한계 산업내 무역지수 변화는 <그림 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서비스무역에서 산업내 무역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산업간 무역에서는 무역특화가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서비스무역의 업종별 한계 산업내 무역지수를 살펴 보면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가 0.981, 개인·문화·오락서비스가 0.965, 정부서비스가 0.952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건설서비스가 0.381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금융서비스와 특허권사용료서비스는 평균(0.616)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서비스의 경우 우리나라가 외국과의 무역량이 거의 없는 산업간의 무역 성격으로 건설서비스의 수입보다는 해외에서의 건설서비스의 수출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그리고 2000년에서 2012년까지 우리나라 한계 산업내 서비스 무역지수는 여행서비스, 통신서비스, 사업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한계 산업내 무역지수는 2012년을 기준으로 볼 때 금융서비스가 0.990, 정부서비스가 0.975, 통신서비스가 0.958 순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으며, 반면에 특허권사용료서비스가 0.111, 보험서비스가 0.278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업종에는 중국이 외국으로부터 산업간 무역구조의 형태를 띠면서 경쟁력이 낮은 것으로 파악된다. 그리고 중국의 한계 산업내 무역지수의 결과 분석을 토대로 볼 때 중국의 서비스 무역구조는 매우 편향된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0년에서 2012년까지 중국의 산업내 무역지수의 변화 추이를 보면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 건설서비스, 사업서비스, 개인·문화·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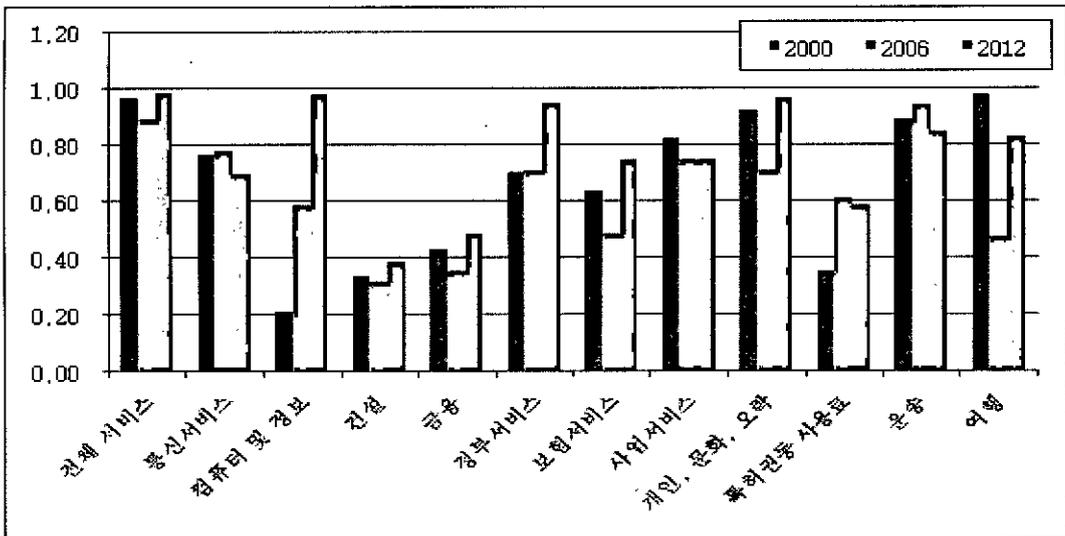
락서비스, 여행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일본의 한계 산업내 무역지수를 2012년 기준으로 볼 때 통신서비스가 0.901, 사업서비스가 0.894, 운송서비스가 0.841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면에 보험서비스가 0.097, 개인-문화오락서비스가 0.261 순으로 가장 낮은 지수로 나타났다. 그리고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 건설서비스, 정부서비스, 보험서비스, 특허권사용료서비스, 운송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는 증가하는 추세로 분석되었다.

미국의 한계 산업내 무역지수는 2000년에서 2012년 기간 동안 점차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는 있으나 전반적으로 평균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2012년 기준으로 미국의 한계 산업내 무역지수를 보면 운송서비스가 0.959, 건설서비스가 0.865, 개인-문화오락서비스가 0.808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금융서비스 0.356, 보험서비스 0.475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2000년에서 2012년까지의 전체적인 변화 추이를 보면 통신서비스,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 금융서비스, 보험서비스, 여행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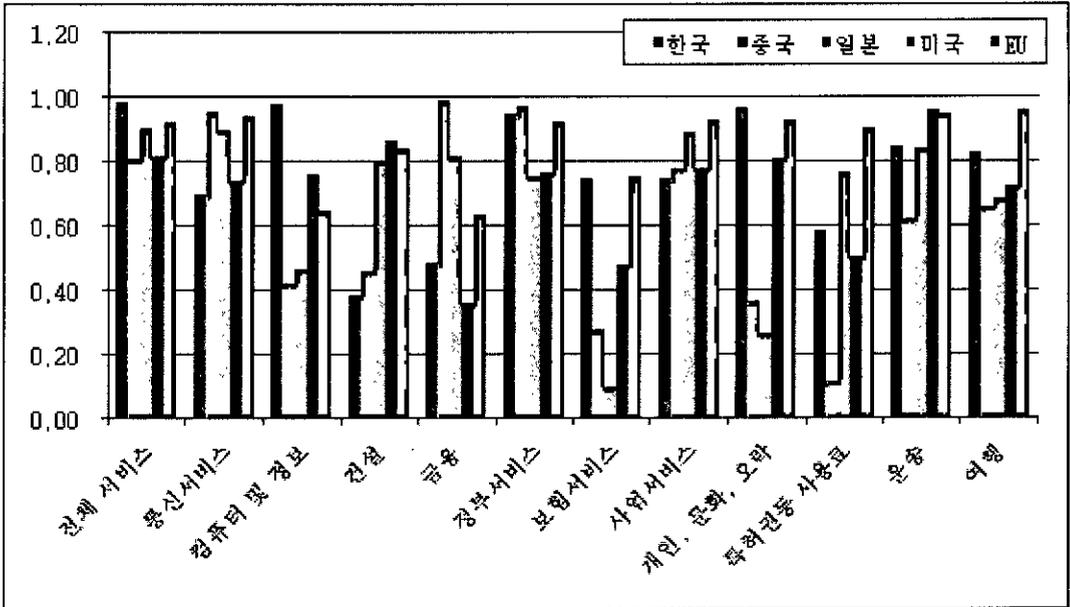
EU의 한계 산업내 무역지수는 2000년에서 2012년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감소해 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EU의 한계 산업내 무역지수는 미국에 비하여 매우 높은 수준을 띠고 있다. 금융서비스 0.632,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 0.647 그리고 보험서비스 0.752를 제외한 모든 업종이 평균 0.925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15> 참조)

<그림 14> 우리나라 한계 산업내 무역지수



자료 : WTO, International Trade Statistics 2013

<그림 15> 국가별·업종별 한계 산업내 무역지수 비교(2012년)



자료 : WTO, International Trade Statistics 2013

3.4. 무역특화지수

무역특화지수(Trade Specification Index : TSI)는 특정 상품(서비스 업종)의 총수출액과 총수입액의 차이를 무역 총액(총수출액 + 총수입액)으로 나눈 값으로 정의되며, 특정 상품(서비스 업종)이 수출에 특화되어 있는지 또는 수입에 특화되어 있는지를 판단하는 지표이다. 지수의 값이 1에 가까울수록 수출특화로 비교우위가 강하고 -1에 가까운 값을 가지게 되면 수입특화로 비교열위에 있는 상태로 평가하게 된다. 또한 무역특화지수가 0 이상 1이하이면 국제경쟁력이 강하고, -1에 가까울수록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이 약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TSI_{ij} = \frac{X_{ij} - M_{ij}}{X_{ij} + M_{ij}}$$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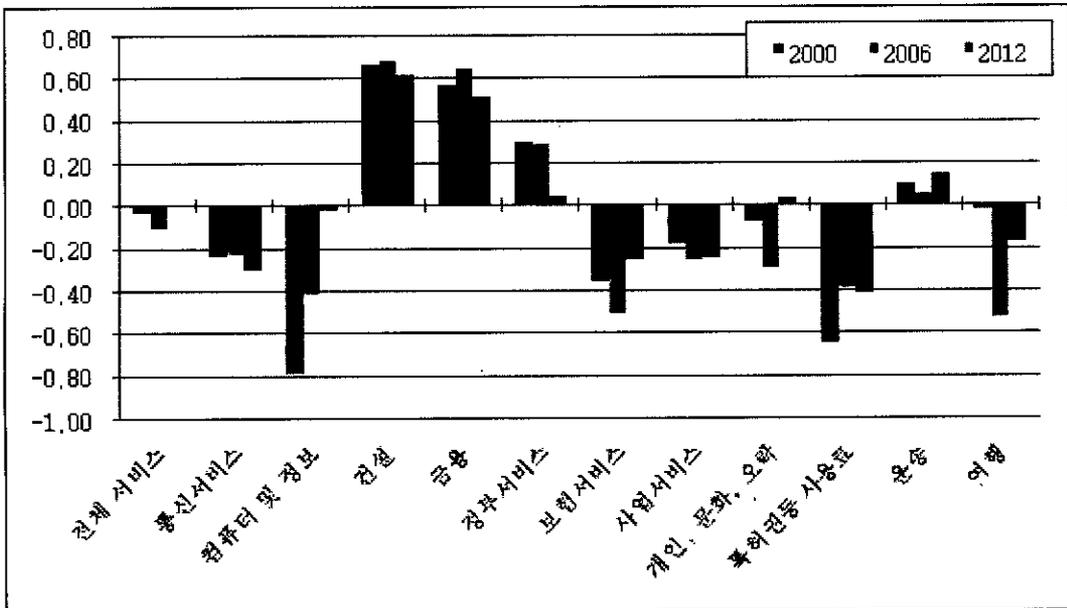
TSI_{ij}: 국가의 i 상품 무역에서의 무역특화지수

X_{ij}: 일정기간 중 j 국가의 i 상품에 대한 총 수출액

Mij:일정기간 중 j 국가의 i 상품에 대한 총 수입액

우리나라 무역특화지수를 <그림 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0년에서 2012년 동안 전체 서비스무역 업종의 무역특화지수는 평균 0.043으로 국제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지속적으로 경쟁력이 제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기준으로 볼 때 건설서비스가 0.619, 금융서비스가 0.519를 기록하여 수출특화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운송서비스의 경우 2006년 0.055에 비하여 2012년 0.149로 경쟁력이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인·문화·오락서비스가 2006년 -0.291에서 2012년에 0.035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되어 수입 특화에서 점차 수출 특화로 개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보험서비스 업종에서도 특화지수가 음(-)의 값을 유지하고는 있지만 2002년부터 무역특화지수가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012년에 통신서비스,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 보험서비스, 특허권사용료서비스, 여행서비스에서 음(-)의 값을 유지하고 있는 업종을 제외하고는 상대적으로 국제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림 16> 우리나라 무역특화지수



자료 : WTO, International Trade Statistics 2013

중국의 서비스 무역특화지수는 2000년에서 2102년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음(-)의 값을 유지하면서 증가하고 있는 것은 국제경쟁력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중국의 서비스무역 시장의 개방 정도가 점차 확대되고 여기에 또한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음을 의미한다. 2012년 기준으로 중국의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가 0.580, 건설서비스가 0.544, 사업서비스가 0.223, 통신서비스가 0.042의 순으로 국제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반면에 이를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는 음(-)의 값을 유지하면서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개인·문화·오락서비스가 2006년에 0.062의 무역특화지수에서 2012년에 -0.635로 수입특화로 전환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중국시장에서의 정보통신 및 IT분야(스마트폰, 게임소프트 등)에서 소비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반증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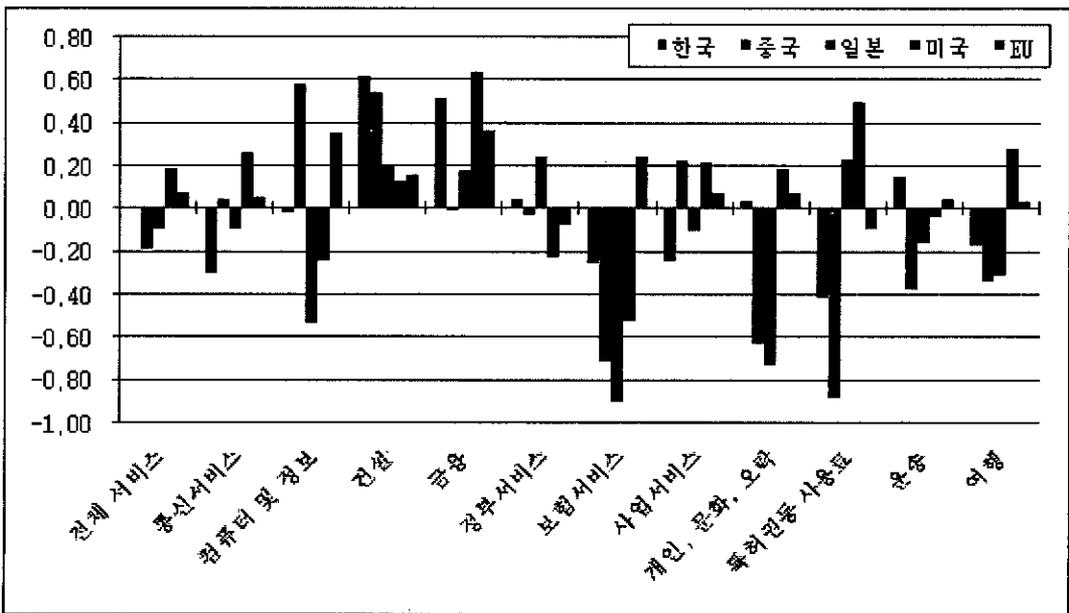
일본의 무역특화지수를 2000년에서 2012년 기간 동안 살펴보면 지속적으로 음(-)의 값을 유지해 온 것으로 나타났으나, 동 기간 동안의 평균 변화값은 0.194로 점차 음(-)의 값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같이 상품 무역특화지수는 높은 수준이지만 서비스 무역특화에 있어서는 다른 국가에 비하여 대체로 취약한 것으로 파악된다. 2012년 기준으로 일본의 무역특화지수는 정부서비스 0.246, 특허권사용료 0.230, 건설서비스 0.198, 금융서비스 0.182의 순으로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는 음(-)의 값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일본의 국제경쟁력이 상대적으로 가장 취약한 업종으로는 보험서비스 -0.903과 개인·문화·오락서비스 -0.739으로 음(-)의 값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이 서비스 무역특화지수를 살펴보면 2000년 이후 2012년까지 전체 서비스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다른 국가에 비하여 국제경쟁력이 강한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금융서비스가 0.644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 순으로 특허권사용료 0.495, 여행서비스 0.279, 통신서비스 0.258로 다른 국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국제 비교우위에 점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에 운송서비스가 -0.041로 가장 비교열위에 있으며,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 보험서비스를 제외 모든 업종에서 국제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U의 서비스 무역특화지수를 살펴 보면 2000년 이후 2012년까지 전체 서비스측면에서 미국과 같이 국제경쟁력이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EU의 서비스무역 규모 측면에서 미국에 비하여 높은 편이며, 서비스 수출과 서비스 수입의 격차 심하게 벌어지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EU의 서비스 무역특화지수를 2012년 기준으로 살펴보면 금

음서비스가 0.368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 순이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 0.353, 보험서비스가 0.247로 경쟁력이 강한 것으로 파악된다. 반면에 정부서비스 -0.077로 가장 낮은 수준이며, 그 다음이 특허권사용료서비스 -0.098을 제외한 모든 서비스업종에서 EU는 비교우위에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2006년을 기준으로 볼 때 통신서비스가 -0.009, 개인·문화오락서비스가 -0.138에서 2012년에 와서는 각각 0.055과 0.070으로 양(+)의 값으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7> 국가별·업종별 무역특화지수 비교(2012년)



자료 : WTO, International Trade Statistics 2013

3.5. 정규화된 무역수지

개그논 앤 로즈(Gagnon J. E. and Rose A. K.)에 의해 고안된 정규화된 무역수지(Normalized Trade Balance)는 무역수지의 개선(악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를 의미하며 무역균형의 측정에 사용된다. 또한 정규화된 무역수지는 무역특화 지표로도 활용할 수 있다. 무역수지의 정규화는 거시경제 변수의 변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영향을 무시하면서 무역수지의 개선 또는 악화에 대한 논의가 가능하다. 만약 특정 산업(서비스

업종)의 무역수지가 악화되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국가의 모든 산업(서비스 업종)들의 무역수지가 동일한 비율로 악화되었다면, 해당 국가에서 특정 산업(서비스 업종)의 상대적 수출경쟁력은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경우에 일반적인 무역관련 지수들에서 모든 업종의 수출관련 수치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지만, 정규화된 무역수지는 전혀 변하지 않는다.

$$NBij = \left[\frac{M_{ij}}{M_j} - \frac{X_{ij}}{X_j} \right] \times 100 (\%)$$

NBij: j 국가의 i 상품 무역에서의 정규화된 무역수지

Mj: 일정기간 중 j 국가의 전체상품에 대한 총 수출액

Xij: 일정기간 중 j 국가의 i 상품에 대한 총 수출액

Mj: 일정기간 중 j 국가의 전체상품에 대한 총 수입액

Xij: 일정기간 중 j 국가의 i 상품에 대한 총 수입액

<표 4>와 <그림 18>은 2000년에서 2012년 기간 동안 우리나라 서비스무역의 업종별 정규화된 무역수지를 나타낸 것으로 개인·문화·오락서비스와 여행서비스의 업종에서 정규화된 무역수지의 부호가 변화되어, 우리나라 서비스무역의 업종별 무역특화가 크게 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개인·문화·오락서비스는 수입특화에서 수출특화 업종으로 여행서비스의 업종은 수출특화에서 수입특화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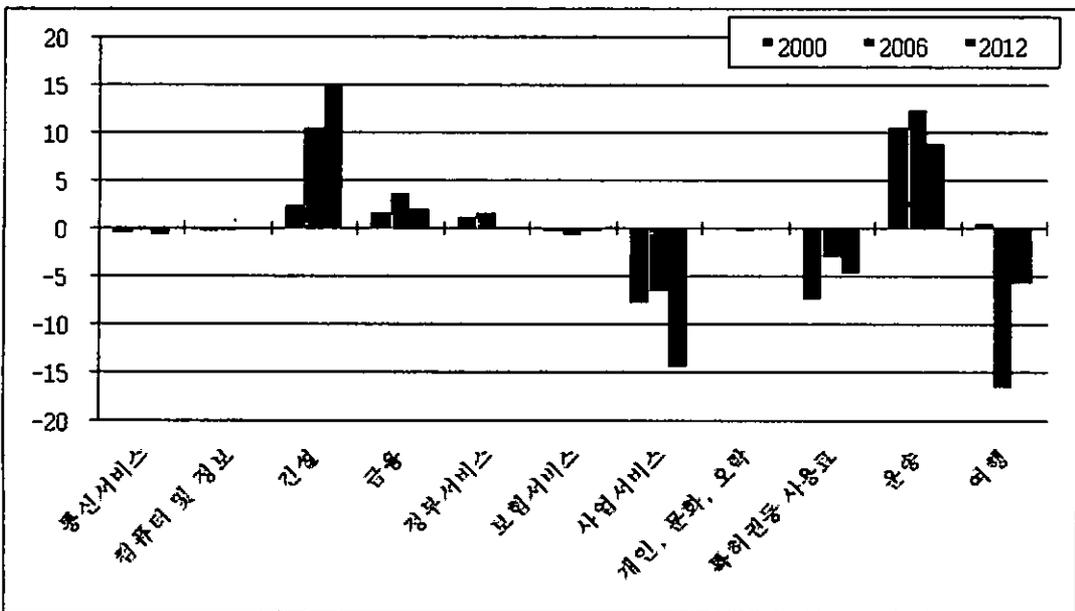
그러나 2006년부터 2012년까지는 정규화된 무역수지의 부호가 변화된 업종이 전혀 없는 것으로 서비스무역의 업종별 무역특화가 변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01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서비스무역의 업종별 정규화된 무역수지가 가장 큰 업종으로는 건설서비스(15.03)이고, 가장 낮은 업종은 사업서비스(-14.58)로 분석되었다. 한편 2000년 이후 정규화된 무역수지가 가장 개선된 업종은 건설서비스로 2000년 2.41에서 2012년 15.03로 개선되었다. 또한 여행서비스도 2006년도에 -16.67로 가장 낮은 수준이었으나, 2012년에는 -5.27로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사업서비스의 정규화된 무역수지는 같은 기간 동안 -6.68에서 -14.58로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우리나라 서비스무역의 업종별 정규화된 무역수지 추이

	2000	2003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통신서비스	-0.62	-0.72	-0.31	-0.32	-0.39	-0.54	-0.57	-0.65	-0.71
컴퓨터 및 정보	-0.24	-0.24	-0.41	-0.17	-0.26	-0.20	-0.25	-0.10	-0.03
건설	2.41	4.87	10.47	11.15	12.40	16.29	11.32	12.53	15.03
금융	1.67	1.75	3.70	4.67	3.46	2.22	2.26	2.68	1.95
정부서비스	1.24	2.33	1.48	1.03	0.36	0.65	0.17	0.13	0.08
보험서비스	-0.22	-0.86	-0.74	-0.61	-0.26	-0.45	-0.33	-0.13	-0.32
사업서비스	-7.88	-7.98	-6.68	-5.93	-13.97	-17.35	-12.44	-14.88	-14.58
개인, 문화, 오락	-0.04	-0.42	-0.31	-0.48	-0.34	-0.34	-0.34	-0.03	0.05
특허권등 사용료	-7.41	-5.01	-3.02	-3.67	-3.24	-4.61	-5.82	-2.65	-4.65
운송	10.61	15.75	12.49	11.79	11.25	9.77	13.71	9.65	8.91
여행	0.48	-9.46	-16.67	-17.46	-9.00	-5.41	-7.72	-6.54	-5.73

자료 : WTO, International Trade Statistics 2013

<그림 18> 우리나라의 정규화된 무역수지 추이



자료 : WTO, International Trade Statistics 2013

중국의 경우에 2000년에서 2012년 기간 동안 정규화된 무역수지는 통신서비스, 건설서비스, 금융서비스 그리고 여행서비스 등의 업종에서 정규화된 수지의 부호가 변화되어, 중국의 서비스무역의 업종별 무역특화가 크게 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통신서비스, 건설서비스 그리고 금융서비스 업종에서는 수입특화에서 수출특화 업종으로, 여행서비스는 수출특화에서 수입특화로 전환되었다.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정규화된 무역수지의 부호가 변화된 업종이 전혀 없는 업종으로는 통신, 컴퓨터 및 정보, 건설, 보험, 사업, 특허권 사용료 그리고 운송서비스 등의 업종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6년 이후 중국의 서비스무역의 업종별 무역특화가 변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012년 기준으로 중국의 정규화된 무역수지가 가장 큰 업종은 사업서비스(19.74)이며, 가장 낮은 업종은 운송서비스(-10.21)로 나타났다. 중국의 정규화된 무역수지가 가장 개선된 업종은 사업서비스로 2000년 5.87에서 2012년 19.74로 개선되었다. 여행서비스는 2006년 12.78에서 2012년 -10.14로 가장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19>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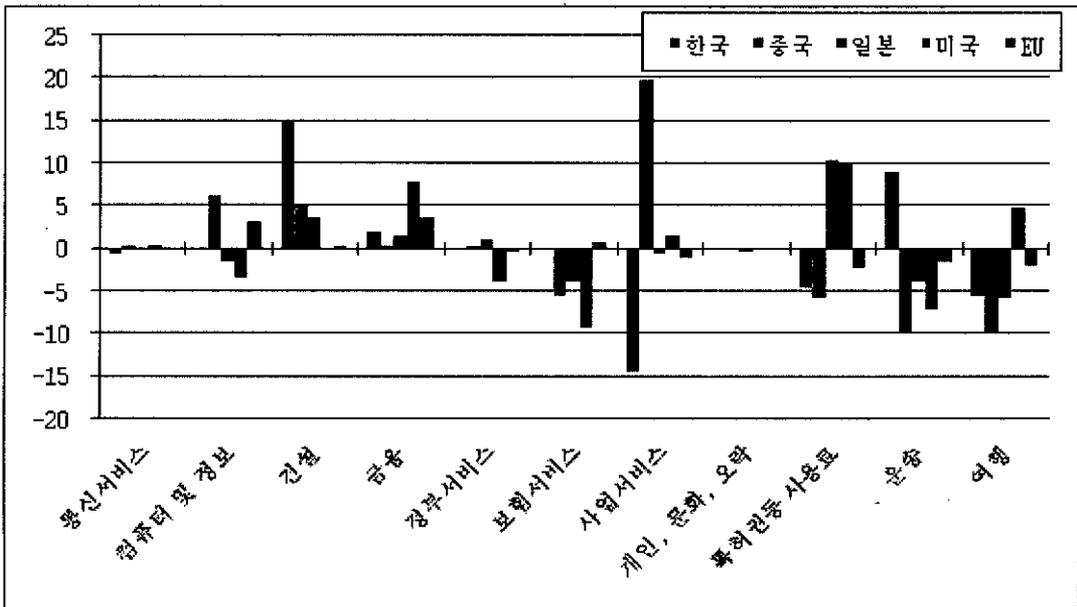
일본의 경우, 2000년에서 2012년 기간 동안 정규화된 무역수지 부호의 변화가 나타난 서비스무역의 업종으로는 통신서비스, 사업서비스 그리고 운송서비스 등이며, 일본의 서비스무역의 업종별 무역특화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업종에서 수출특화가 수입특화 업종으로 전환되었다. 2006년에 들어서는 정규화된 무역수지의 부호가 변화된 업종이 전 업종에 걸쳐 전혀 없는 것으로 우리나라와 비슷한 현상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6년 이후 2012년까지 서비스무역의 업종별 무역특화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2012년 기준으로 일본의 정규화된 무역수지가 가장 큰 업종은 특허권등사용료서비스(10.50)이고, 가장 작은 업종으로는 여행서비스(-5.20)로 나타났다. 일본의 정규화된 무역수지가 가장 개선된 업종은 여행서비스로 2000년 -22.83에서 2012년 -5.82이며, 그 다음의 순위 특허권등사용료서비스로 2000년 5.21에서 2012년 10.50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동일한 기간에서 가장 악화된 업종은 운송서비스 업종으로 8.02에서 -3.87로 크게 악화되었다.

미국의 경우, 2000년에서 2012년 기간 동안 정규화된 무역수지의 부호가 변화된 업종으로는 통신서비스와 건설서비스의 업종이다. 이 업종 중에서 통신서비스의 업종은 수입특화에서 수출특화 업종으로 전환되었고, 건설서비스는 수출특화에서 수입특화 업종으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이후 2012년까지 통신서비스의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정규화된 무역수지의 부호가 변하지 않았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미국의 정규화된 무역수지가 가장 개선된 업종으로는 금융서비스의 업종으로 2000년 2.68에서 2012년

7.77로 나타났다. 반면에 동 기간에 가장 악화된 업종으로는 보험서비스의 업종으로 -3.87에서 2012년-9.41로 나타났다.

EU의 경우, 2000년에서 2012년 기간 동안 정부서비스, 보험서비스, 운송서비스 그리고 여행서비스 등 4개 업종의 정규화된 무역수지의 부호가 변화되어, EU의 서비스무역의 업종별 무역특화가 크게 진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부서비스, 운송서비스 그리고 여행서비스에서 수출특화에서 수입특화로 전환되었고, 보험서비스는 수입특화에서 수출특화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06년 이후 2012년까지 EU의 정규화된 무역수지의 부호가 전 업종에 걸쳐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기준으로 정규화된 무역수지가 가장 큰 업종으로는 금융서비스(3.55)로, 가장 낮은 업종은 특허권등 사용료서비스(-2.39)로 나타났다. 2006년에 정규화된 무역수지가 가장 낮은 여행서비스(-2.89)가 2012년에 -2.02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인·문화·오락서비스는 2006년 -0.52에서 2012년 -0.05로 정규화된 무역수지의 개선 폭이 가장 큰 업종으로 나타났다.

<그림 19> 국가별·업종별 정규화된 무역수지 추이



자료 : WTO, International Trade Statistics 2013

IV.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세계경제의 글로벌화와 지역경제 심화로 세계무역규모는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며, 이에 제조업 및 서비스무역의 규모도 급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총 무역규모는 세계의 무역규모에서 선진국 수준의 무역규모를 가지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서비스무역의 규모는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서비스 무역규모는 2012년 기준으로 세계에서 13위로 세계 서비스 수출 및 수입규모가 각각 2.5%와 2.53%로 매년 두 자리의 숫자로 증가하고는 있으나, 이러한 서비스무역의 증가가 서비스 무역적자 확대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심각한 서비스 무역적자의 구조화 문제로 지적된다. 또한 우리나라의 서비스 무역적자는 경상수지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우리나라 서비스 무역구조는 지역별로 살펴보면 중국, 미국, 일본, EU지역에 편중되어 있으며 이 중에서 중국에 대한 수출이 상대적으로 흑자를 시현하고는 있지만 미국, 일본, EU 등의 지역에 대해서는 적자가 큰 폭으로 지속되고 있다. 서비스무역의 업종별 비중에서는 운송서비스, 건설서비스, 사업서비스, 여행서비스 등에서 높은 것으로 운송서비스와 건설서비스는 무역수지가 흑자인 반면에 사업서비스와 여행서비스는 적자가 클 뿐만 아니라 적자규모도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운송서비스의 경우, 수출 비중이 36.72%인 반면에 수입 비중은 27.87%로 흑자의 결과를 산출하고 있다. 그러나 여행서비스의 경우 수출 비중이 12.84%인 반면에 수입비중은 18.58%로 적자 폭이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사업서비스의 경우도 수출 비중이 20.64%인 반면에 수입 비중은 35.25%로 적자 폭이 확대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서비스무역 업종 중에서 외국에 비하여 특출하게 비교우위가 높거나 경쟁력이 확보된 업종은 없으며, 여행서비스나 사업서비스, 통신서비스, 특허권등사용료서비스 업종은 국제경쟁력이 매우 낮은 뿐만 아니라 적자가 확대 추세에 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제조업 위주의 성장으로 제조업이 강한 산업구조를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서비스산업의 무역수지 적자는 앞으로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 논문의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보면, 우리나라 서비스 무역구조는 중국, 미국, 일본, EU 지역에 편중되어 있으며 이 중에서 중국에 대한 수출이 상대적으로 흑자를 시현하고는 있지만 미국, 일본, EU 등의 지역에 대해서는 적자가 큰 폭으로 지속되고 있다. 서비스무역의 업종별 비중에서는 운송서비스, 건설서비스, 사업서비스, 여행서비스 등에서 높은 것으

로 운송서비스와 건설서비스는 무역수지가 흑자인 반면에 사업서비스와 여행서비스는 적자가 클 뿐만 아니라 적자규모도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운송서비스의 경우, 수출 비중이 36.72%인 반면에 수입 비중은 27.87%로 흑자의 결과를 산출하고 있다. 그러나 여행서비스의 경우 수출 비중이 12.84%인 반면에 수입 비중은 18.58%로 적자 폭이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사업서비스의 경우도 수출 비중이 20.64%인 반면에 수입 비중은 35.25%로 적자 폭이 확대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서비스무역 업종 중에서 외국에 비하여 특출하게 비교우위가 높거나 경쟁력이 확보된 업종은 없으며, 여행서비스나 사업서비스, 통신서비스, 특허권등사용료서비스 업종은 국제경쟁력이 매우 낮을 뿐만 아니라 적자가 확대 추세에 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제조업 위주의 성장으로 제조업이 강한 산업구조를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서비스산업의 무역수지 적자는 앞으로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시비교우위지수에서는 2006년 이후 건설서비스, 운송서비스, 개인·문화·오락서비스 등의 업종이 비교우위에 있는 것으로 분석된 반면에 보험서비스, 여행서비스,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 등의 업종에서는 비교열위에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무역특화지수에서는 건설서비스, 금융서비스 업종에서 서비스 수출특화로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특허권등사용료서비스, 여행서비스 그리고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의 업종에서는 수입특화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한계 산업내 무역지수 분석에 의하면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 정부서비스, 개인·문화·오락서비스, 특허권등사용료서비스 등에서 무역특화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반면에 여행서비스는 경기 변동, 환율, 소득, 투자, 물가수준 등 거시경제변수에 민감하여 호황에는 적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경기 호황기에는 여행수요의 급감으로 인해 적자가 감소하거나 흑자로 전환될 수 있어 경기 상황에 따라 서비스수지가 개선될 여지가 있는 업종으로 판단된다. 반면에 사업서비스와 특허권등사용료서비스 업종의 경우는 상품 수출이 증가할수록 적자가 증가되는 업종이기에 전통적으로 제조업이 강한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를 고려한다면 무역수지 적자 확대로 서비스수지 적자의 구조화 가능성이 높다.

정규화된 무역수지 지표에서는 여행서비스, 개인·문화·오락서비스의 업종에서 정규화된 무역수지의 부호가 변화되어 우리나라 서비스무역의 업종별 무역특화가 크게 변한 것으로 분석되었고, 이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무역특화가 변화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우리나라 정규화된 무역수지에서 수입특화에서 수출특화로 변화된 업종으로는 개인·문화·오락서비스이고 수출특화에서 수입특화로 전환된 업종

은 여행서비스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최근 우리나라 정부는 서비스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서비스산업의 국제적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을 발표하여 서비스수지 개선에 노력하고 있다. 특히 정부의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 대책에는 중소기업의 서비스수출지원시책으로 여행서비스 수지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서비스정책은 단기적인 서비스수지 개선에만 급급하지 않고 장기적 관점에서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 정책 프로그램이 운용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는 수출대상국에 대한 정보 제공 서비스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며, 무역확대가 예상되는 업종에 대한 우선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서비스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 금융지원의 범위 확대, 세제상의 혜택 제공, 그리고 서비스산업 R&D에 대한 정부 투자지원확대 및 민간투자 독려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참고문헌

- 김우중 · 최용민(2011), “서비스산업지원체제혁신방안-서비스수출지원방안을 중심으로 -”, 한국무역협회.
- 김영춘(2013), 한·미간의 서비스무역에 관한 비교 분석, 제주대학교 관광과경영경제연구소 제 30호.
- 박문서(1989), 한국의 서비스무역구조분석,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 준(2011), “주요 서비스 무역수지의 결정요인과 시사점 - 운송, 여행(교육), 사업, 지적 재산 서비스를 중심으로 -”, 한국무역협회.
- 박진우 · 최용민(2011), “우리나라와 주요 선진국의 서비스산업 고용 비교 -지식서비스산업 및 기반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 한국무역협회.
- 이경희 · 박문수(2009),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산업간 및 산업내무역구조 분석”, 삼성경제연구소.
- 이경희 · 박문수(2011), “한·미·일 서비스 무역구조 비교 분석과 시사점”, KIET.
- 정영식 · 고덕기 · 정대선(2012), “한국의 서비스수지 개선 배경 및 시사점”, 삼성경제연구소.
- 조현승(2008),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수출경쟁력 분석 -현시비교우위지수를 중심으로 -”, KIET.
- 조현승 외(2009), “서비스산업무역구조 및 무역결정요인 분석”, KIET.
- 최용민(2010), “우리나라 서비스수출의 문제점과 경쟁력 현황”, 한국무역협회.
- AadityaMattoo, Robert M. stern, and Gianni Zanini, A HANDBOOK OF INTERATIONAL TRADE IN SERVICES, OXFORD UNIVERSITY PRESS, 2007.
- Balassa, B.,Competitiveness of American Manufacturing in World Market, New York: Hooper, 1965
- Bruhart, t. “Marginal Intra industry Trade : Measurement and Relevance for the Pattern of Industrial Adjustment,” Review of World Economics, Vol. 130, Issue 3, 1994, pp.600~613.
- Ferto, I. and L.J. Hubbard,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and Competitiveness in Hungarian Agri-Food Sectors” , World Economy 26(2),

2003.

Gagnon J. E. and Rose A. K., "Dynamic Persistence of Industry Trade Balances : How Pervasive is the Product Cycle?," Oxford Economic Papers, Vol.47 NO. 2, 1995, pp.229~248.

Grunfeld, L. A. and Moxnes, "The Intangible Globalization : Explaining the Patterns of International Trade in Services," Working Paper, No. 657, Norwegian Institute of International Affairs, Oslo, 2003.

Ricardo Hausmann, Jason Hwang and DaniRodrik, WHAT YOU MATTERS,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2005.

SanjayaLall, John Weiss and Jinkang Zhang, The 'Sophistication' Of Exports: A New Measure Of Product Characteristics, OXFORD UNIVERSITY PRESS, 2005.

Vollrath, T., "A theoretical evaluation of alternative trade intensity measures of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s", WellwirtschaftllicheArchiv, 130, 1991.

<http://www.imf.org>

<http://www.wto.org>

<http://www.worldbank.org>

<http://kosis.kr>

<http://www.bok.or.kr>